

상해섬유대전, 국내기업 참가 열기!

한국섬유연합회, 152개 기업 신청 ... 경기부진 속 중국시장 공략 의지

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2003년 4월24일-26일간 3일간 상해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섬유패션 대전(Preview In Shanghai)의 참가신청을 최종 마감한 결과 총 152개 기업이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.

이러한 기업들의 참가열기는 전반적인 경기상황을 고려할 때,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국을 비롯한 전세계 시장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이번 전시회는 중국 등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적인 의욕을 가진 기업들에게 최고의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
프리뷰 인 상하이 전시회 준비는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와 산업자원부, KOTRA의 후원속에 차질없이 진행되어 왔으며 다양한 프로모션 행사를 통해 한국패션브랜드가 고부가가치 제품이라는 이미지를 확실하게 심고 아시아 섬유패션산업을 리드할 한국-중국 섬유산업의 협력기반 구축도 도모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.

KOTRA는 중국 섬유시장은 한국 섬유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공간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시장 공력전략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.

국내에서는 한국 섬유산업의 기지인 대구에서 3월20-23일 4일간 국제섬유박람회가 개최되고 있으며, 효성 등 섬유관련 기업들의 참여도가 높은 상태이다. <황현혜 기자>

<Chemical Journal 2003/04/10>